2024년 9월 22일(주일) 제1701호

순례자

대한예수교장로회
서 울 교 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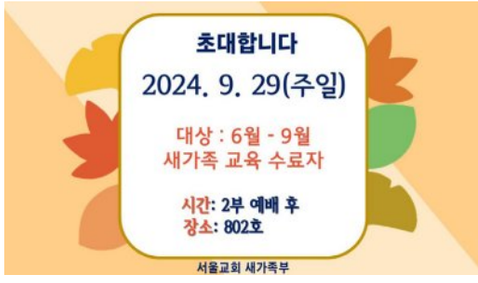
1.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2. 다시 교회로(Rebuild)
3. 모두 함께 기쁨으로(Rejoice)

2024년 2차 새가족환영회

9월 29일(주일) 2부 예배 후 802호

새가족부(부장:차영도 장로)에서는 9월 29일 주일 2부 예배 후 802호에서 2024년 6월부터 9월까지 수료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를 갖습니다.

이 자리에 새가족 교육수료자 모두가 참석하셔서 서울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도와의 교제로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먼저다!

서울교회 위임목사 청빙을 위한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웨스트민스터홀

예배위원회 섬김위원 모집

주일 1부, 2부, 3부, 찬양예배 및 수요 1부, 2부에서 섬겨주실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을 모집합니다.

섬김을 원하시는 성도들께서는 교회 사무국에 비치된 "섬김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기다립니다.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 방문

9월 29일(주일)

9월 29일 주일에 프랑스 개신교 연합 총회장 엠마누엘 세이볼트(Emmanuelle Seyboldt) 목사와 국제부장, 통역 선교사, 수행원 등 총 네 분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총회장인 엠마누엘 세이볼트(Emmanuelle Seyboldt) 목사는 이날 1, 2부 설교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엠마누엘 세이볼트 목사
(Emmanuelle Seybold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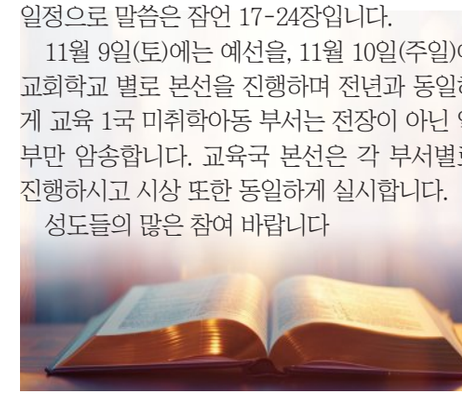
2024 성경암송대회

예선 : 11월 9일(토)
본선 : 11월 10일(주일)

2024 성경암송대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4 성경암송은 11월 9일(토)-10일(주일) 일정으로 말씀은 잠언 17-24장입니다.

11월 9일(토)에는 예선을, 11월 10일(주일)에 교회학교 별로 본선을 진행하며 전년과 동일하게 교육 1국 미취학아동 부서는 전장이 아닌 일부만 암송합니다. 교육국 본선은 각 부서별로 진행하시고 시상 또한 동일하게 실시합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교회 사랑 프로젝트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 개최

10. 18(금)부터 10. 19(토) 양일간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를 개최합니다.

'서울교회 사랑 나눔 장터'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서울교회 바자 정신을 아름답게 계승한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나눔 장터입니다.

특별히 올해 바자는 교인 기업인 홍보책자를 바자 기간 내 제작합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내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교회 성도님께는 함께 하는 즐거움을 나누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습니다.

성도들께서도 이번에 제작되는 기업 홍보책자에 많은 관심 기울여 주셔서, 바자 행사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자영업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자영업 성도님들은 교구 간사께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 계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한은행 대치동 지점
100-034-868968(대한예장 서울교회)

1991년 11월 24일 창간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copyrights ⓒ seoulchurch, all right reserved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tel :(02)558-1106 fax : (02)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마 20:20-28

손달익 위임목사

고대교회사에서 '황금의 입'으로 불리는 교부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AD349-407)은 안디옥에서 사제가 되어 목회사역을 하다가 콘스탄티노플 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가며 당시 귀족들의 사치와 황족들의 개인 우상화를 철저하게 비판했고 성직자들에게도 엄격한 수행과 청빈 생활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이 세대란 이 시대를 지배하는 대중들의 가치관과 유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에서 공동체에 대한 기여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자기 영광과 능력을 과시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권세자들은 호령하고 군림하고 지배자로 살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 지위보다 사명을 생각해야

본문의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하여 먼 길을 걸어 예루살렘으로 행하시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는 것을 기피하여 이런 우회로를 선택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예수님도 그 관례를 따라 먼 길을 우회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막 10:32). 예수님은 이제 유대의 교권자들이 공회를 열고 죽일 것을 결의하고 이방인인 로마 총독에게 인계할 것이며 그들이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 지위나 명칭에 관하여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의 권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직 십자가의 대속만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지위보다 사명에만 몰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처음부터 지위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살로메는 주님께 다가와서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21절)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자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는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자리나 지위를 탐하지 말고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위나 직분에 관심이 많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없이 지위만 추구하면 그것이 세속화요 성직을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1 - 12). 선지자나 교사나 목사나 사도나 집사나 누가 어떤 직분을 가지는가가 중요하지 않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사명감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근본입니다. 세상의 가치로는 지위를 얻는 것이 승리고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자리나 지위를 탐하지 말고
감당해야 할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지위나 직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없이 지위만 추구하면
그것이 세속화요
성직을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2. 지배하지 말고 섬겨라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은 주변 제자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분노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도 역시 자리를 탐하는 명예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부르시어 세상 제도와 정치에서는 당연히 고위직일수록 권력을 행사하고 지배자로서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25-27절) 그리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소위 리더십의 유형 가운데 섬김의 리더십인 'Servant Leadership'의 원리가 되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는 섬기는 자요 공동체의 종입니다. 섬기는 자는 'Diakonos, 즉 일하는 자'라는 의미이며 종은 'Doulos, 노예'를 의미합니다. 우리 신분은 노예와 같고 우리 하는 일은 섬기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복음의 일꾼, 섬기는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 고백에 어울리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회는 갈등에 직면하고 세속화된 부패조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권을 장악했던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을 정치인으로 생각했고 정치적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면 법이 된다고 생각했고 모든 백성들은 당연히 굴복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섬겨야 한다거나 종의 신분에서 일해야 한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그 제자들을 고문하고 협박하고 죽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가 중세로 접어들면서 비슷한 타락 양상이 생겼습니다. 막강한 교권으로 세속 왕권을 지배했고 거짓 교리를 만들고 이를 악용하여 백성들을 착취하고 권력 남용의 전횡을 일삼았습니다. 교회가 권력을 자랑하고 물질의 힘을 과시하면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낮아져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하고 섬김을 삶의 근본으로 알아야 합니다.

3. 목적을 새롭게 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28절) 예수님은 왜 당신 자신이 섬기려 하시는지, 왜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권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기어이 지려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당신이 비천한 신분으로 오시고 힘없는 자처럼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고 죄인처럼 죽으시는 이 모든 일의 목적이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요, 반드시 죽어야 하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죗값을 지불하시기 위함이요, 죄인들을 섬기시기 위함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목적의식은 우리 삶의 표준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말이나 행위에 있어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아야 주변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우리의 삶의 표준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모두 자기가 잘 되는 것이 판단의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구원 얻는 일에 유익한 것이 판단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구원에 방해되는 일을 '실족시키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전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 믿도록 돕는 일을 목적 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목적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버렸고 다 포기했고 마침내 십자가에 당신 생명도 바치셨습니다.

교회 각 부서를 탐방하며

최근우 집사
(3교구)

9월의 첫 주부터 2학기 피택자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10월은 〈전도와 봉사훈련〉이 진행됩니다. 부서탐방 세 곳을 방문하는 것이 주어진 과제인데, 첫 번째 방문할 부서를 찾는 것이 저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매주 주일 오전은 20살 청년때부터 지금까지 17년 동안 섬기던 유아부 부서를 떠나 다른 부서를 경험하는 것이 저에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타부서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훗 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봉사부서를 경험하리라 다짐하며 고심 끝에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피택자교육을 담당하시는 박미라 전도사님이 계시는 〈새가족부〉에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202호실 입장과 동시에 새가족부의 사랑과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차영도 장로님과 애쓰시고 헌신해 주시는 전도사님, 교사분들을 뵙고 나니 서울교회 새가족부의 첫인상은 '천국'과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새가족부는 서울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는 첫 부서이기도 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공부하며 성령님께서 새로 오신 분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움직여 주시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박미라 전도사님의 강의는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과 나, 죄과 구원에 대해 강의해 주셨고 강의 내내 뜨거운 감동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서 탐방의 시간이 제게 위로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처음 새가족부에 등록하면 담당 교사를 배정받습니다. 5주간의 교육을 통해 수료하게 되면 서울교회의 교적을 받습니다. 수료자는 각 지역별로 교구 다락방에 배정을 받게되고 각각 여성분들은 전도회로 남성분들은 선교회에 정착하게 됩니다. 새가족부는 분기별로 새가족 환영회를 갖게 되는데 담당교역자, 교구장, 다락방장, 간사분들이 참석하여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아직 서울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새가족부에 꼭 등록하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서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 생활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부서탐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피택자분들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게 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피택자분들을 격려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신다면, 훗 날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봉사부서에 귀하게 섬길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택자 분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고은희 집사
(3교구)

부족하고 죄 많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한 섬김의 자리인 권사로 피택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월에 장석남 목사님의 늦은 전화에 무슨 일이실까 하고 받은 말씀이 피택 권사 교육을 열심히 받고 권사로서의 삶을 준비하라는 말씀에 너무나 당황하고 잘못 전화하신 게 아닌지 여러 번 되묻곤 하였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20명이 조금 안 되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남편을 따라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었고, 가정의 평안한 생활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는 형식상 같이 가는 것으로 하면 되겠지... 라는 마음으로 처음 주일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사실 기도와 성경공부는 거의 하지 않고 주일에만 부담감과 죄책감으로 기도를 하고 월요일이 되면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지냈습니다. 2016년 3월에 교회 근처로 이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생활의 모범과 더욱 기도하는 가정으로의 노력을 하고자 서울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5년 이상 교회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 때마다 마음에서 올라오는 눈물을 견딜 수 없어 많이도 울었습니다. 소속된 의료선교회 활동도 전혀 하지 못하고 주일마다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은 여기서 예배하라는 것이었고 사실 다른 옵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피택 권사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진심으로 교회에 봉사하고 많은 이들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말씀을 진심 인지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피택 교육을 6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들의 구약개론, 신약개론, 칼뱅주의 구원교리의 요약, 회중기도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진심으로 다시 한번 성경공부에 대한 초심을 다시 다지게 되고 〈집사, 권사, 그 자랑스러운 봉사〉라는 책에 대한 독후감도 준비하고 일주일에 두 편씩 경건생활일지도 작성하고 신 • 구약 성경 통신 공부도 진행 중입니다. 상반기 전도사님의 전도에 대한 강의 및 최근 70인전도대 전도실습을 처음 가면서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는지 더욱 반성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전도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집사 및 권사님들의 노고와 땀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어려운 순간 그 기도로 교회를 지켜내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후에 제가 그 일을 본받아 잘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권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기도를 열심히 할려고 합니다.

항상 아이들과 제 환자, 가족들의 기도가 제

기도에 전부였으나, 이제는 서울교회와 나라와 전도를 위한 기도까지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공부 및 최근 의료계의 상황이 너무 좋지 않고 병원 일에 쫓기어 제 시간도 도저히 낼 수 없는 엄마와 의사로서의 삶이 척박하여 예배 및 봉사 활동은 여유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용서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택자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악하고 용서받지 못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라는 말씀처럼 진심으로 서울교회의 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전도하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몇 가지 봉사 활동 및 부서탐방, 해야할 과제물이 남아 있습니다. 병원 당직 및 월-주일까지 80시간이 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남은 교육 과정까지 잘 마치겠습니다.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교육을 수료하며

환영합니다!

자신을 점검 할 수 있었던 시간

이기형 성도
(1교구)

할렐루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요 11:40)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1991년 11월 24일 창립된 서울교회임을 새가족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받기 전 서희숙 권사님의 찬양인도 따라, 나무와 물고기가 기쁨으로 춤추듯, 우리도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춤추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다 보니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믿음이 흔들릴까를 교육 중에 되돌아보게 되었는데 일곱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0여 년간 직업상 이동이 잦다보니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그 하나고.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시험들고 믿음이 흔들렸음을 체험했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것이 된 저는 이제는 더욱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박 전도사님과 새가족부 교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 바자를 준비하며

훈훈하고 풍성한 바자가 되기를

예완식 안수집사
(2024바자 차장)

서울교회 바자는 1996년 '새예배당건축을 위한 열린바자'를 시작으로 헌당을 위한 바자, 우물파기, 수재민돕기, 불우이웃 돕기 등 그동안 많은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웃사랑과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사랑나눔 축제'가 10월 18(금)-19일(토)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바자에서는 교인기업 중심의 상품구성, 교회학교와 연계한 나눔 장터, 온라인 바자 구성 및 상시 기반 마련, 실업인 홍보책자 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바자는 대치1동에서 주최하는 제1회 한티문화축제(19일/토 오전 12-오후 4시)가 한티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더욱 풍성하고 잔치같은 축제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 후원을 할 것이며 참여도 할 수 있도록 부스도 마련됩니다. 부스에서 페이스페인팅이나 풍선만들기 등으로 서울교회의 사랑을 전하실 분은 바자본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두 행사가 조화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리바자를 은혜가운데 잘 마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9월 29일(주일)부터 사랑의 온도계를 시작으로 본 바자가 진행됩니다.

교회학교와 연계한 벼룩시장, 바자회를 더욱 값지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한 우리 옷장 비우기, 버리기 아까워 보관중인 물품창고 비우기를 통해 나눔의 실천을 해 주시기 바라며, 자영업자, 상공인 성도님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보다 많은 물품들을 준비해서 훈훈하고 풍성한 바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저희 바자본부에서는 감사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내 이웃과 가족들을 많이 초대하셔서 오곡백과가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며 이웃사랑, 성도사랑, 교회사랑을 실천하고 서울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2강 : 사도신경 - 성자 하나님(7)

51문 :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첫째,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사들을 부어 주십니다. 둘째, 그는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이 전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지체와의 관계, 곧 머리의 영광과 온 몸의 영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트라푸의 성 요한 교회에 있는 위엄 있는 그리스도〉를 다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이 영광'을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 그림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비록 왕관을 쓰는 것은 머리이지만, 왕관을 쓴 왕의 영광이 머리만의 영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머리가 왕관을 쓰는 것으로 온 몸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지체일 때에만,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이 되어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려고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가 되지 않고서 그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쓰신 왕관을 빼앗아서 자신의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사를 누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원수의 먹이감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는 한국 교회 역사의 몇몇 슬픈 장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 변하여, 마치 그 영광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왕노릇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모습을 보이다가, 심지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처하고 교회에서 갈라져 나와 다른 종교를 만드는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박태선의 천부교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은 왕의 백성인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는 무능해서 전쟁 중에 백성들을 버리고 도망갔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지키시는 왕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52문 :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은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답:**내가 어떠한 슬픔과 핍박을 당하기 전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사 내게 임한 모든 저주를 제거하신 바로 그분이 심판자로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머리 들어 기다립니다.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 곧 나의 원수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하실 것이며, 나는 그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그에게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신학자들마다 설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은 누군가에게는 무죄가 선고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유죄가 선고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은 벗겨지고, 원수는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무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유죄가 선고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심판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은 이후에 각 그리스도인이 삶에 대해서 심판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책망, 선한 행위에 대해 갚아주시겠다는 약속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위에 대해서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86문-91문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정 리

성자에 대한 고백의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46문부터 52문까지는 승천과 좌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죽으심과 부활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지 않았던 것처럼, 승천과 좌정도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면, 구원 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좌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사도신경에 언급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전도하시고 병든자와 약한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루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이 그를 이길 수 없었고 삼일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겠다',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제자로서의 사명을 확인시켜주셨고, 승천하시면서 선교명령과 교육명령을 전달하셨고, 성령을 선물로 약속하셨던 것을 떠올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식사 제공

- 교회 제공

'한국교회사 50장면' 단행본 출간

지난 2023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손달익 위임목사님께서 순례자에 한국교회사 50장면을 연재하여 우리 역사 한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폈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순례자 편집부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여 한 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피택 안수집사와 피택 권사 필독서로 제공되며 구독을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각 교구 간사님들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에 신청이 안되신 분은 사무국에서도 수령 가능합니다

군입대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

자녀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3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30 도고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2030 도고팀장 고선옥 권사
  02)558-1106(교회 대표전화)
- 기도 대상자들
  김민우 오원준 감정헌 구민우 최건 허정
  이유찬 김예준 이정환 안중호 소위
  황수지 중위

지하 주차장 이용 에티켓

1. 주일 종일 봉사자는 3층, 혹은 뒷열에 주차 하기
2. 앞열 혹은 2중 주차 시 꼭 주차관리실에 자동차 키 보관하기
3. 운전석 전면에 연락처 올려놓기

70인전도대 9월 전도 일정

주일	자원자(오후 1시-2시)	선교회(오후 1시-2시)	수	전도회(오후 1시-2시)
9.1	자원자	빌립, 안드레, 베드로	9.4	도르가, 루디아, 뵈뵈
9.8	자원자	바울, 엘리야	9.11	마리아
9.15	자원자	모세	9.18	추석
9.22	자원자	이삭	9.25	리브가
9.29	자원자	스데반회		

2024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9월23일	월	슥 10–14
9월24일	화	슥 10–14
9월25일	수	말 1–4, 마 1–3
9월26일	목	마 4–5
9월27일	금	마 6–8
9월28일	토	마 9–11
9월29일	주일	마 12–13

맥체인 성경통독			
삼하19	고후12	겔26	시74
삼하20	고후13	겔27	시75,76
삼하21	갈1	겔28	시77
삼하22	갈2	겔29	시78:1-37
삼하23	갈3	겔30	시78:38-72
삼하24	갈4	겔31	시79
열상1	갈5	겔32	시80

서울 주간기도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코람데오(Coram Deo) 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과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소서.

2. 서울교회 제 4대 위임목사 청빙 절차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소서.

3. 대한민국이 복음 위에 통일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로 함께 하소서.

■ 섬기는 분들

◇ 손달익 위임목사

◇ 부목사
장석남 김익환 현종필 최종국

◇ 전도사
박미라

◇ 준전임전도사
손주찬 전진석

◇ 교육전도사
배인혜 김가은 성선혜

◇ 협동목사
양정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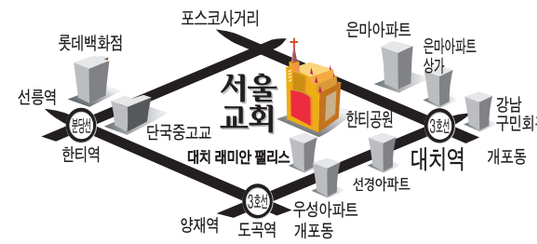
◇ 시무장로
최형열 이강인 차영도 유충기
서은석 김광태 노제현 김혜언
김승록 이민호 오윤걸 백도환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본 당
	2부 예배	오전 11시	
	3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배	오후 4시 30분	
수요 예배	1부 예배	오전 11시	웨스트민스터홀
	2부 예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홀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웨스트민스터홀
금요기도회		오후 8시	웨스트민스터홀

■ 주일 교육부서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403호
유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6호
유치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2호
유년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701호
초등부	오전 11시 - 12시 10분	601호
중등부	오전 9시 - 10시 30분	501호
고등부	오전 9시 - 10시 20분	602호
청년부	오후 3시 30분 - 5시	601호
신혼가정부	오후 12시 30분 - 2시	606호
사랑부	오전 10시 30분 - 11시 30분	603호
소망부	오전 10시 10분 - 11시	102호
신앙강좌부	오후 12시 15분 - 12시 55분	602호
새가족부	오전 10시 10분 - 오후 2시	202호
세례교육부	오후 12시 10분-오후 2시	609호

■ 서울교회 QR코드

■ 교회 오시는 길